

# 500여 작가 참여 '統一로 가는 길'

## 포천에서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2월25일 개막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포천시에서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가 오는 2월25(토)일부터 3월6일(월)까지(10일간) '統一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반월아트홀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남부현대미술제는 22년 전 광주에 '현대작가 에뽁고' 부산의 '역 미술동인회' 제주도의 '관정 미술동인회'가 한데 모여 시작했으며 그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서울집중을 지방으로 눈 돌려가 하는 기폭제역할은 물론 현대미술의 수평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포천전시는 한국의 현대회화와 조각을 대표하는 500여 작가가 참여해 순수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관계자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 민족의 비극인 6.25동란과 더불어 휴전선을 곁에 두고 역사의 비극을 간직하면서, 반세기 이상을 긴장 속에서 살아온 포천에서 남부현대

미술제 개최는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문화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시기간중 3월4일에는 한국누드 크로키회 40여명과 대진대, 경북대, 포천지역작가가 참여하는 공개 누드 크로키, 2월26일부터 3월5일까지 읍면동민이 함께 만드는 작품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김중근, 강선보, 김중일, 최재창 ▶제22회 운영위원장 이병석 ▶운영위원 서영환, 김진두, 황행일, 이종승, 정현숙, 박미용, 이보석, 이정진 ▶사무국장 김승희 ▶총무 강구원 ▶전국운영위원 허중하, 박인관, 이상재, 예유근, 이갑열, 박종갑, 석점덕, 김해근, 정영진, 김호연, 박남희, 김결수, 박명규, 정장직, 김훈곤, 심문용, 손준호, 김한창, 홍현철, 백광익, 현남주, 김향숙, 송재용, 김한국, 조주호, 이규환, 노정숙, 윤병학 ▶초대작가 450여명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2회 남부현대미술제 포스터.

### 韓國의 선비정신 · 19

## 충의열사(忠義烈士) 송상현(宋象賢)

1561년(명종6) ~ 1592년(선조25)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 한천(寒泉) 10세에 이미 경사(經史)에 밝았다고 한다.

1570년(선조3) 진사가 되고 1576년(선조9) 번시문과에 급제, 주서(注書), 경성판관(鏡城判官) 역임, 1576년(선조17) 종계변무사(宗系辨別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호조정랑, 예조정랑, 사재감(司宰監), 군사감정(軍資監正) 역임, 1591년(선조24) 동래부사(東萊府使), 1592(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침입하여 동래성을 포위함에 부산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과 함께 막아 싸워 죽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화살도 떨어지고 정발도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적이 성안으로 들이닥치자 수행한 보좌관 신여로(申汝魯)를 보고 당부했다. '나는 이땅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신하이니 목숨을 바쳐야 마땅하지만 너는 노모가 계시니 함부로 죽어서는 안된다'

이르고 갑옷자락을 여인후 복항 재배하고 단정히 앉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고성월훈(弼城月暉) 외로운 성을 달무리 하듯 적이 에워 쌓는데 열진고침(列陣高枕) 이웃의 진지는 잘들어 있습니다.

군신의중(君臣義重) 군신의 의가 무거워 부자은경(父子恩輕) 부자의 은혜는 가볍게 되었습니대라 하였다.

적이 들이닥치자 그는 이웃나라의 도리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너희를 침범한 적이 없거늘 너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송부사의 당당한 모습에 물려섰다. 그러나 순절하였다.

애장 평의지(平義智)가 그의 충절에 탄복하여 동문밖에 장사지내고 나무를 세워 표하였다. 이 뒤로부터 밤마다 환한 기운이 하늘에 뽀얗히 수년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이방복(李恒福)이 애사(哀詞)에 외로운 성 달밤에 담소(談笑)로 지휘하는 것이 공의 열(烈)이 아닌가 흰 칼날이 앞에 닿아도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공의 절개가 아닌가

남문의 붉은 기운이 두우성(斗牛星)을 쓰는 것이 공의 정기(精氣) 아닌가 라고 읊었다.

예조판서, 좌찬성에 추증되고 부산의 충렬사(忠烈祠), 개성의 송렬사(崇烈祠), 청주의 신항사원(辛巷書院), 고부의 정충사(旌忠祠)에 배향,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 공연제작석사(MFA) 국내 1호 이희용 氏 논문 발표

## 김태수 서민극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연출



1997년에 다닌 IMF는 국민들을 절망감 속으로 몰아넣었고 부도와 명예 퇴직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애환과 공포가 물러들었다. 기쁨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연극계는 더욱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다. 바로

이때 서민극은 사실주의적 형태로 관객들의 감성을 어루만지며 선풍적 호응을 얻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서민극은 공연회수가 빈약하다. 그렇지만 한 시대의 유행으로 돌러버리기에 너무나 장점이 많은 작품이다. 또한 90년대 말까지 연극계의 화두였던 김태수의 서민극에 대한 새로운 시도나 연구가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음을 안타까운 일이다. 관심이 줄어든 이유가 너무나 통속적이든 구성이 진부한 것든 관객을 감동시켰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극의 형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연출노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된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형식을 취했는데 논문의 내용은 다음의 세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서민극의 용어 논쟁과 개요를 간단히 논할 것이다. 다음은 포스트모더니즘 연극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이론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며, 서민극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연출에 대한 방법을 기술할 것이다. 끝으로 연출대본을 원본과 함께 정리하여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했다.

본 논문을 위한 연출 작품으로 서민극 시리즈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되었던 <옥수동>에 서민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선택했다. 텍스트는 "김태수 희곡집"을 기본으로 하되 작가에게서 받은 원본을 참고로 각색한 후 비교 정리하였다. 본 논문을 위한 공연은 두 차례 대진대 예술관 소극장 및 스튜디오극장에서 이루어졌다. 2005년 9월에 원작에 충실한 대본으로 공연되었으며 11월에는 각색대본을 토대로 공연 및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동안 서민극에 대한 기성 평론가들의 평

이희용(사진)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이 대전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영상제작 전공(연극) 석사학위논문 발표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직장생활과 무모수 명예적인(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또 시간을 아껴 대전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영상제작 전공으로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유우영)을 지난 9월 완성했다. 2006학년도 대전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될 이 지부장의 논문 요약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가는 대부분이 정형화되고 모더니즘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본 공연에서의 연출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대부분을 재구성하고 사족의 부분은 장면 전체를 삭제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정리하였다. 움직임과 포즈 그리고 상징적인 한마디 대사로 장면 전체를 함축시켰다. 전체적으로 삼(#)의 개념을 도입한 무대와 기호화한 조명, 그리고 비사실적인 영상 사용에서 다양한 장면의 이미지를 형상화 했다. 따라서 배우들의 연기도 일부 양식화했다. 또한 솜대를 닮은 가로등으로 기원 및 기다림을 표현했고 몇 가지 영화적인 기법-예를 들면 클로즈업, 몽타주 편집기법 등-들을 사용하여 인물의 회로에 락을 관객에게 디테일 하게 전달하려 했다.

상징적인 노래와 음향효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창출했고 원본에 없는 침묵과 포즈를 만들고 음향효과를 첨가하여 인물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고통 그리고 기다림 같은 정서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삼(#)의 기호적인 언어를 살리기 위해 영상과 바닥조명 즉, #, =, #, 0, V, - 등으로 극중 상황을 기호화 했다. 가로등 불빛을 솜대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극중 인물의 기원을 상징화했다. 작품의 희극성을 살리기 위해 기본 톤을 밝게 했다.

결론적으로 서민극을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에서 고찰해본 결과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었다. 그동안 서민극의 공연은 언어의 전달에 중심을 두고 철학적 깊이나 함축적 의미의 부재를 빠른 진행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 논객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쓰인 사투리나 시장에서 쓰이는 생생한 말투 그리고 말장난에 가깝지만 감각적인 언어구사에서 보이는 언어의 맛

이 퇴색되지 않았음을 보였다. 결국 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가능성을 찾으면 포스트모더니즘 연출기법 차원에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한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인 표현과 비디오 아트와의 상호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시 말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연출방법을 도입한 공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작가 자신이 피력한 심리적 의미의 환상적 또는 마술적 리얼리즘과 관련한 유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색이 돋보이는 공연도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서민극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연출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작은 변화였다. 극의 해체와 시점의 변화 그리고 조명을 통한 이미지의 변화는 배우들의 퍼포먼스적인 연기와 조화를 이루어 서민극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다.



김태수 서민극의 포스트모더니즘 연출

## "대장금 얼음궁전 구경하세요"

### 양주골 얼음축제, 수도권 새로운 겨울명소 기대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양주골 얼음축제 행사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양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장흥관광지와 양주골 한우마을에서 '2006 양주골 얼음축제'를 개최한다.

장흥관광지와 양주골 한우마을은 서울근교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한여름가 죽던위의 피서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며, 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주골 얼음축제를 개최한다.

'양주골 얼음축제'에는 최근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이색적인 볼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높이 10미터의 초대형 대장금 얼음궁전이 그 대표적인 볼거리, 이외에도 납대문과 탑 모양의 다양한 얼음 빙등(氷燈)이 선보인다.

또 인공으로 조성한 가로 10미터, 세로 20미터 크기의 대형 얼음 폭포와 얼음터널과 이글루, 눈 조각과 눈꽃나무 등이 전시돼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겨울철 얼음풍경을 만끽 할 수 있다.

지역해 기자 94spice@hanmail.net



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장흥관광지와 양주골 한우마을에서 '2006 양주골 얼음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얼음분수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다.

## 乙酉歲暮有感 東同豐風逢

(을유세모유감)

(동동풍풍봉)

### 초대 漢詩

祝禧丙戌日昇東(축희병술일승동)  
해가 동에서 솟이오르니 병술 새해의 기쁨을 축하하며

政客難爭誰不解(정객난쟁수해)  
정객들의 난쟁을 누가 풀지 않는고

春光瑞氣千山映(春光瑞氣千山映)  
사기어린 불빛은 천산을 비치고

送舊迎新當此際(송구영신당차)  
저무는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冬至生陽古今東(동지생양고금동)  
해가 도터워지는 동지는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儒林懿德自然豐(유림의덕자연풍)  
유림의 덕은 바른 자연이 풍요롭고

五福叢來萬里風(오복총래만리풍)  
오복이 만리에서 바람타고 오는구나

繁昌經濟北南逢(번창경제북남봉)  
경제가 번창하고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한다.



嘉隱 崔宗圭  
포천시민단체총연합회추진위원장

### 초대 詩

## 어쩌면 자유종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고 있다

어쩌면 자유종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고 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첫 민방의 연인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처럼 울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트고 자내는 지인 몇 사람에게 자신의 연인을 넘겨주는 듯 그렇게 잔잔하게 공명(共鳴)하고 있을 뿐이다. 그 떨림은 아름다운 음악이 주는 감동과 환희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종은 원래 몇 사람의 예민한 떨림에 맞추어 만들어진 종이 아니다.

남과 여를 초월하고 지역과 신분을 초월하며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여, 개인의 자유와 그 개인들의 자유가 모여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하려는 더 큰 주파수의 진동에까지 공명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울림에서부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울림까지 감내하도록, 핵무기로도 깨지지 않을 견고함으로 나는 우리를 마음속의 자유종을 더 큰 대지 위에서 천하를 향해 울리게 하고 싶다.

당장은 마흔의 고도가 신진지로 거듭나게 하는 울림으로 그리고 조상의 애국애족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고 소리쳐 외치는 울림으로 민족 내부의 거대한 자해를 다시 한번 집결시켜 세계로 나아가는 진군의 북소리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피 흘려 쟁취한 자유가 한리에서 백두까지 쟁쟁히 울려 넘치게 하기 위해 본단의 최정경민 이곳 한반도의 한 가운데서 자유종이 울리면

한북정맥의 요새(要塞) 만월산성을 휘돌아 마흔의 봉우리 봉우리마다 메아리치고 증폭되어 우리나라 전역으로 울려 퍼져 그것이 남과 북이 공명하는 통일이 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로 울려 퍼지게 하여 인간 자유와 인류 문화의 새 장이 열리게 하고 싶다. 모든 인간의 고귀한 행위는 노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종을 주조하는 주물공장에서 장인의 노력이 동봉 이혜조 선생의 흔과 합치하여 새로운 자유종으로 완성하기를 소망한다.

그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울리고 있는 자유종이 세계민방을 향해 울리도록 포천 시민의 염원과 마흔 역사의 흔을 담아 시민의 대중, 자유종이 우리 눈앞에 현상하기를 기원한다.



홍을표  
이해조문학회 회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무처장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54)

## 상록수 정도식(鄭道植) 교장님



포천의 '새마을 운동'은 故 정도식 교장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면 여러 독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도식 교장님은 포천의 '상록수'였다. 1900년(고종 37년) 군내면 좌의리에서 출생하신 정도식 선생께서는 본관이 동래였다. 1920년 3·1운동 다음해에 서울에 있는 경성사범 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동공립 보통학교를 개교할 때 훈도(訓導 : 지금의 정교사)로 취임하였다.

농촌부흥운동을 일으켜 잘 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밤에는 야학을 개설하여 마을 사람들과 학교 못 가는 어린이들을 사랑으

로 가르치셨다. 마을 청소년들을 모아 지금의 4H구락부 같은 '일심회(一心會)'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청소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구자적 상록수로서 온 심혈을 경주한 모범 청년교사였다.

특히 퇴비 증산 운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온 마을을 누볐으며 밤이면 마을회관에서 계몽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또 늘 약가방을 들고 다니며 학생들을 치료함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진료하였다. 가산, 삼정, 청성 초등학교의 교사·교장을 역임하

고, 동두천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급환으로 별세하시었다. 추운 겨울 정도식 교장님의 장례식에는 제자들의 조문 행렬이 십리나 길게 이어졌던 생각이 난다.

1955년 겨울 55세를 일기로 그토록 사랑하던 학교와 고향과 포천사람들을 떠나시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던 생각이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였다 고 말하는 제자도 있었다. '농촌 계몽 운동'의 탐 흘린 교육자였다고 회상하는 사람도 있다. 1955년 포천초등학교에서 포천 관내 교장회의를 할 때면 교장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철봉 소차, 대차, 등 난이도가 높은 묘기를 시범했던 정도식 교장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운동도 못 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였으니 놀라운 체육 기능 보유의 모범 교장이셨다. 양주군, 포천군, 고양군, 경기도 학부과장으로 승진, 경기 교육 총책임자로 초빙되었으나 사양하고 오직 시골 고향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을 위해 헌신한 한국의 '페스 탈로찌'였다고 볼 수 있다.

요즘 학교의 교육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내 고향 포천의 교육이 타 시·군에 비해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정도식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진다. 포천의 4H운동이나 농어촌 발전 운동이 바로 정도식 교장님의 선구자적 노력의 계승운동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후진 세대가 교장님은 군내면 좌의리 동래 정씨 선영에 잠들고 계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